

농사와 함께 하는 농촌사역

이 성 호(목사, 경남 거창 산수교회)

저는 지금 쌀농사를 9년 째 짓고 있습니다. 첫째, 두 번째 해에는 남들과 똑같이 농약과 제초제를 쓰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추수를 하면 거둬들인 나락을 한꺼번에 정미소에 가서 쌀로 찼어서 다른 사람에게 쌀을 팔기도 하고 1년 내내 양식으로도 합니다. 삼 번째 되던 해에는 농약을 치려니까 양심의 가책이 왔습니다. “소위 너는 사람의 영혼을 살리겠다고 일하는 목사가 아니냐? 그런 네가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독약인 제초제와 농약을 사람들이 먹는 쌀에 치는 것이 잘하는 일이나?” 도저히 양심의 소리를 거역 할 수 없어서 제초제와 농약을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우렁이를 이용하여 제초를 하기로 하고 무공해 유기농사를 시도했습니다. 경험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우려곡절도 있었지만 그런 대로 농사가 잘되어 가을에 기쁨의 수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했던 대로 나락을 한번에 모두 정미소에 가서 쌀로 찼어 왔습니다. 1년 먹을 쌀을 한곳에 쌓아두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5개월쯤 되니까 쌀에서 벌레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쌀벌레가 없었기에 아무 생각 없이 한꺼번에 쌀로 찼은 것입니다. 결국 그 쌀을

다 버리고 그 해 추수 때까지 쌀을 사먹었습니다. 지금은 나락 상태로 두고 조금씩 짊어먹고 있습니다.

농약을 치는 쌀에서는 쌀벌레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농약을 하나도 치지 않았더니 벌레가 생겼습니다. 벌레도 생기지 않는 쌀로 밥을 먹는 우리라고 온전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게다가 밥은 우리의 주식입니다. 하루 세끼 빠짐없이 벌레도 살수 없는 쌀을 먹으니 그 속에 잔류하는 농약이 몸속에 축적 될 것은 자명한 일이 아닙니까?

우리 몸에 축적된 독은 서서히 우리의 의식을 마비시켜 나갈 것입니다. 점점 참을성은 없어지고, 남을 배려하는 아량도 사라지고, 오직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심만이 이 사회를 지배할 것입니다. 세상은 미쳐있습니다. 미쳐있는 세상을 향해 교회는 정신을 차리고 “우리는 미쳐있다” 라고 외쳐야 할 것입니다.

저의 농사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1994년부터 농사를 했으니 이제 9년 차 농사를 마쳤습니다. 지나온 세월이 꿈과 같습니다. 저는 농사와 전혀 관계없이 살아온 사람입니다. 전형적인 도시인으로 써 농사짓는 것을 한번도 본적이 없었습니다. 가족 중 누구 하나,



이성호 목사 부부

아니 친척 중 누구 하나도 농사짓는 사람이 없는 전형적인 도시인인 저는 도시 생활의 풍요로움과 편리함에 푹 빠져 생활했습니다. 물질문명을 즐기며 누리는 것이 제게는 너무도 당연한 생활이었습니다. 그만큼 농사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런 제가 지금 농사에 푹 빠져 자연의 일부가 되어 땀 흘리는 농사꾼이 된 것은 불가사의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몇 년의 농촌 생활에 소식이 단절된 이전의 친구들로부터 간간히 들려오는 저에 대한 소문은 참으로 어이 없었습니다. 죽었다는 등, 이혼하고 산에 들어갔다는 등 별별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농사의 맛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 나는 지금이 좋기만 한 걸”.

농촌 목회자가 된 내력

군대를 제대하고 신학대학에 복학하였을 때 저의 미래를 그려보았습니다. 어떤 목회자가 될 것인가? 침묵과 고뇌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정리된 저의 길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산다.

둘째, 공동체 목회를 지향한다.

셋째, 신앙과 생활이 일치가 되는 목회를 힘쓴다.

넷째, 가능하면 어렵고 힘든 쪽을 택한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 농촌이었습니다. 농촌 목회로 방향을 잡고 나니 농사를 아는 목회자가 되고 싶은 욕심이 났습니다. 농사를 지어야만 농민과의 생활 속에서 하나가 될 수 있고 농촌 교회의 자립 역시 농사를 통해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전도사 시절에 농사를 알기 위해 연세대학교 농업개발원에 들어갔습니다. 원예과 1년, 낙농과 1년 등 총 2년의 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농사 전반에 대한 이론적 공부를 마치고 나니 농사를 짓고 싶은 의욕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농촌에 아무런 연고도 없고 농사 경험도 없는 저로써는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

다. 그래서 현장 경험도 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몸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에(저는 물렁살입니다. 조금만 고된 일을 하면 그 날은 반드시 몸살이 납니다) 목장의 목부가 되기로 했습니다. 경북 상주와 경기 안성의 목장 3군데를 거치며 2년의 목부 생활 끝에 배가 썩 들어가고 알통이 단단한 한 사람의 농부로 저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어느 직업보다 환경이 열악하고 일이 힘든 목부 일을 통해서 저는 또 다른 세상을 볼 수 있었고 함께 일했던 목부들을 통해서 인간에 대한 편견을 버릴 수 있었습니다.

임지의 선택, 주민들의 면접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어느 정도 생기자 농촌으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하나 막상 갈 곳이 막연했습니다. 아내와 저는 몇 가지 기준을 세우고 지역을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교회가 없는 곳이어야 한다.

둘째, 가능하면 낙후된 곳이어야 한다.

셋째, 지역 고도가 해발 400m 이상이어야 한다. 온도를 높이는 쉬워도,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낮추기는 어렵고, 병충해가 평지보다 절반이나 1/3 수준으로 덜하기 때문이다.

넷째, 주변 경치가 좋아야 한다.

다섯째, 땅값이 아주 싼 곳이어야 한다.

이런 기준을 놓고 우리나라 지도를 봤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찍었습니다. 처음 우리는 전북 장수로 이사 갔습니다. 1년 반이던 세월을 기다리며 정착지를 찾았지만 우리 기준에 맞는 곳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인근의 덕유산을 보게 되었고 어느 날 홀연히 이곳 산수 마을을 보게되었습니다. 산수 마을은 덕유산 거창 쪽의 깊은 골짜기에 있는 50여 호의 산 속 마을로 해발 700m 높이에 있었습니다. 계곡의 경치가 매우 뛰어났으며, 교회는 없었

습니다. 하루에 노선버스가 아침 저녁으로 두 번밖에 운행되지 않는 오지(奧地)였습니다.

무턱대고 이장을 찾았습니다. 농사지으러 들어오겠다고 하자, 이장은 빈집이 없다고 딱 잘라 말하는 것입니다. 외지인에 대한 경계심 때문임이 분명했습니다. 이후 수시로 마을을 찾아 이장을 만났습니다. 우리의 끈기에 이장은 차츰 마음을 열렸고, 우리가 마을에 해를 끼칠 사람은 아니라고 판단된 듯 했습니다. 산수 마을을 본지 8개월만에 마을 한가운데에 빈집이 있음을 밝혔고 우리는 그 집을 사기로 했습니다. 물론 그 집은 2년 전부터 비어있던 집이었습니다. 집주인을 만나기로 한 날, 이장 집에 가니 방안에 마을 사람들이 빼곡히 들어앉아서 우리 부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인사하고 자리를 잡자마자 마을 분들에 의한 면접시험이 시작됐습니다. 2시간 여 동안 날카로운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별별 질문이 다 나왔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혹시 목사는 아니냐?”는 질문은 없었습니다.



산수마을 전경

다. 제 대답이 끝나자 제일 어른 되시는 분이 '합격'을 선언하여 드디어 산수 마을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4월에 집수리를 마치고 이사 왔기에 농사지를 땅을 구할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여차하면 내 농사는 짓지도 못하고 품이나 팔면서 지낼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행인지 불행인지 뒷집에 사는 아저씨가 저를 찾아 왔습니다. 아주머니가 다리가 아파서 부산에 있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자기 혼자서는 도저히 농사를 짓지 못하니 집 아래에 있는 밭을 붙여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뜻밖에 300평 정도의 밭이 생겼습니다. 아무런 농기구도 갖추지 못한 제게 뒷집 아저씨는 자기가 쓰려했던 거름도 내주고, 직접 자기 집 소로 밭을 갈아주었습니다. 여기에 저는 고추, 콩, 팥, 깨, 배추 등 밭에 심을 수 있는 모든 작물을 다 심었습니다. 이 밭은 물이 지는 밭이었는데 이 해는 유난히 가뭄이 심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밭은 바짝 말라 타들어갔지만 우리 밭은 아무런 영향 없이 모든 작물이 다 잘되었습니다. 제대로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 호기심의 눈초리로 쳐다보던 동네 분들은 자기들 것보다 훨씬 잘된 우리 농작물들을 보면서 서서히 한마을 사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던 뒷집 아주머니는 열흘만에 돌아왔는데 이후 지금까지 몸이 아파 일을 못한 적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밭을 장만해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자 앞집 아저씨가 자기가 짓던 논 2마지기를 붙여보라고 내 주었습니다. 경운기를 빌려서 논을 갈고 못자리를 만들고 모를 키워 모내기를 했습니다. 숙달된 분은 한 사람이 하루에 1마지기씩 모를 낸다고 하는데 우리 부부는 2마지기를 꼬박 3일 동안 모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틀 동안 몸져누웠습니다. 모를 낸지 1주일 되었을 때 피 제초제를 논에 뿌렸습니다. 그런데 3-4일쯤 지나자 벼가 누렇게 죽어 가는 것입니다. 이상하다 싶어 누렇게 죽은 벼를 뽑아들고 농촌지도소를 찾았습니다. 제초제 피해였습니다. 알고 보니 밭에 쓰는 피 제초제를 논에 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논은 온 마을 사람들의 근심거리가 되었습니다.

다. 물갈이를 몇 번했더니 다행히 죽은 벼 포기 뿌리에서 새싹이 나오기 시작하더니 소출은 약간 떨어졌지만 그런 대로 수확은 잘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 모두가 내 일처럼 기뻐해 주었습니다.

전혀 연고도 없는 곳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처음부터 너무 유별나게 보이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이미 농사 이론은 공부해서 알고 있었지만 잘 아는 것도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 가며 농사를 지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제가 물어 볼 때마다 크게 기뻐하면서 마치 내 일처럼 거들어 주었습니다. 심지어 앞집 아저씨는 학교공부는 자네가 나보다 나을 줄 모르지만 농사는 나한테 배워야 한다고 목에 힘을 주어 말하곤 했습니다. 저도 그 말씀이 옳다고 맞장구를 쳤습니다. 이런 모습이 맘에 들었는지 나를 마치 아들처럼 대하면서 내 농사에 관심을 기울여 주고 거들어 주어 첫 해의 농사는 성공이었습니다. 물론 남들처럼 제초제, 농약을 다 치고서 말입니다.

농기구가 없어서 경운기를 구입하려 할 때 아직 반값 구입의 순번이 돌아오지 않았는데도 다른 분들이 양보해 주어서 구입 할 수 있었고, 관리기도 곧 이어서 반값으로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집에는 화장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재실에 있는 화장실을 사용했는데 거리가 멀고 길이 고르지 못해 여간 고생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때 재래식 화장실 개량사업이란 것이 있어서 화장실을 고치는 데 면사무소에서 45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지금도 나무를 때서 난방 할 정도로 낙후된 마을이기에 화장실을 고치려고 순번을 기다리는 집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집에 화장실이 없어서 고생한다고 선뜻 순서를 바꿔주어서 화장실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내게 베푸는 만큼 나도 차량으로 봉사하고, 경운기로 거름도 날라주고, 밭도 갈아주며, 비닐 피복기로 비닐도 씌어주면서 보답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곳 산수 마을에서의 농사는 순조로운 출발을 보였습니다.

동네 분들은 제사를 지내면 방송을 하여 동네사람들을 불러모아

제사음식으로 아침식사를 합니다. 그때 저는 한번도 빠지지 않고 가서 그 가정이 구원받도록 식사기도를 간절히 하고 밥을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래도 목사라는 사실은 눈치를 못 채고 어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느냐고 묻는 겁니다. 저희는 주일이면 아무리 바쁜 때라도 반드시 일을 쉬고 주일예배를 드리고, 수요일예배와 새벽기도회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와 둘이 방에서 수요일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연히 들렀던 동네 청년이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기로 해서 첫 신자가 생겼습니다.

교회의 건축과 창립

그 해 가을 아들 목사의 교회를 지어 주기를 소원했던 아버지의 헌금으로 마당에 조립식 건물 교회를 지었습니다. 저는 교회를 짓는다고 하면 반대 할 것이 자명한 사실이기에 동네 어른들에게 “농사를 지으니까 농산물을 보관할 창고가 필요하고, 가족들이 오면 거처 할 곳도 필요하기에 방 겸 창고 겸의 건물을 지으려고 한다.”고 말했더니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짓는데 거창교회 목사가 교회 차를 타고 와서 일을 거들어 주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앞집 아저씨가 심상치 않은 생각이 든 모양입니다. 술을 먹고는 저를 찾아왔습니다. 분명히 교회건물을 짓는다는 겁니다. 교회가 되면 사람들이 와서 밤새도록 울고불고 하며 시끄럽게 할 것인데 자기는 그 꼴은 못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측량을 해서 조금이라도 자기 땅을 침범한 것이 드러나면 가차없이 뜯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가 아닌 단순한 창고이면 상관없다는 겁니다. 시골집들은 대체로 경계가 모호합니다. 더군다나 지붕이 그 집 담안으로 뻗어 있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저씨, 제가 언제 아저씨께 피해를 준 적이 있었습니까? 손해를 보면 제가 봤지 언제 아저씨를 힘들게 한 적이 있습니까?” 했더니 그렇다는 겁니다. 속으로 “우리교회는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

로 채워지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동네사람들이 다 교인이 될 겁니다. 그리고 아저씨도 우리 교회 교인이 될 거예요” 하며 다시 말했습니다. “저를 믿으세요. 절대 동네 시끄럽게 할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랬더니 아저씨는 나를 믿는다며 돌아갔습니다.

며칠 후에 경남 지방회 진주 감찰장과 몇 분의 목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교회를 창립하는 일은 더할 나위 없이 좋고 축하할 일이지만 이 목사가 견디지 못하고 다른 데로 가버리면 도저히 후임자가 오지 못할 곳이라 걱정이 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동네 분들은 저 같이 들어와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없으면, 구원받을 길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평생 이분들을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뼈를 묻겠습니다.” 했더니 지금도 말리고 싶은 마음이지만 이 목사의 뜻이 그렇다면 할 수 없다고 축복기도 하고 가셨습니다.

1994년 12월 27일 동네의 1년을 결산하는 대동회에 맞춰서 돼지잡고, 떡을 해서 교회에서 동네잔치를 했습니다. “저는 사실 목사입니다. 목사는 어디에 있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자리는 교회입니다.” 했더니 “그러면 할 수 없지 뭐, 교회나 목사는 싫지만 자네는 좋으니까 끝까지 우리와 살자”고 했습니다.

드디어 1995년 1월24일 창립예배를 드렸습니다. 온 동네사람들이 다 와서 함께 하는 가운데 성황리에 드렸습니다. 하지만 한동안은 오히려 어려웠습니다. 목사라고 하니 어떻게 대해야 할 지 모르겠다는 표정입니다. 또, 이제 본색을 드러냈으니 매일 교회 나오라고 얼마나 귀찮게 할까 하는 생각들이 역력했습니다. 저를 보면 슬슬 피해 다녔습니다.

2년 차 농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농사를 시작하자 서먹하고 어색하게 대했던 것을 풀고 다시 예전처럼 대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일꾼이 다 됐다고 하면서 붙이던 땅을 양보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확보된 땅이 2,000평쯤 되었습니다. 전 해에 제초제를 잘못 사용하여 벼를 다 죽일 뻔한 사건은 제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또 마

을 사람들 말을 들어보니 한 번 이상씩 농약에 중독 된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생명을 위해 일한다는 목사로써, 생명을 죽이는 제초제와 농약을 써서 농사를 짓는다는 게 양심의 가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농약을 쓰지 않고 농사를 짓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3월이 되었습니다. 국민일보를 보니 전남 장성의 한마음공동체 이야기가 기사로 실렸습니다. 왕우령이를 이용하여 무제초제, 무농약 유기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즉시 한마음공동체에 가서 남상도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왕우령이 농법 교육을 받고 우령이를 분양 받아 논에 넣었습니다. 성공이었습니다. 하지만 밭농사는 아직도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관행농법으로 배추 800평, 고추 200평, 감자 450평, 팥 500평을 했습니다. 전 해에 비해 몇 배 농토를 늘렸지만 큰 문제없이 농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20여 년 전부터 고집스레 무농약 유기농법을 지켜온 크리스천 농사꾼들의 모임인 정농회(正農會)라는 단체가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벼농사는 왕우령이 농법으로, 무농약 유기농 농사를 시작했지만 아직 밭농사는 관행농법으로 농사하는 나로써는 정농회에 가입할 자격은 갖추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정농회에서 나온 '무농약 벼농사 개요'란 팜플렛을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C. P. K 만드는 법, 야채효소 만드는 법, 마늘유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또 세선회(世宣會)의 세미나 때 김채룡 목사님으로부터 유기농법에 대한 교육을 받고 밭농사도 무농약 유기농법으로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겨울이면 우리 동네는 할 일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한글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동네 분들 중 절반은 글을 모르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체부가 오면 일부러 동네를 한바퀴 돕니다. 슬그머니 가서 고지서나 편지내용을 읽어 주곤 했습니다. 글을 모르니까 색깔로 구분해서 농약을 칩니다. 잘못해서 살충제나 살균제를 쳐야 할 때 제초제를 치면 애써 키운 농작물을 한순간에 말려 죽여 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은 대부분 대구나 부산 등에 나가 살고 있는 데 자식

이 데리러 오지 않으면 혼자서는 밖에 나가지도 못합니다.

소일거리가 없었던 동네 분들은 저녁 먹기가 무섭게 교회로 왔고 자기 이름자도 못쓰던 분들이 주소나 자식 이름도 쓰고 떠듬거리며 동화책을 읽게 되기까지 꼬박 두 달이 걸렸습니다. 요일 개념이 없기에 주일이나 수요일도 쉬지 못하고, 저는 밖에도 나가지 못하고 한 겨울을 보냈습니다. 농협에 가서 예금하는 방법, 돈 찾는 방법 등을 가르치고 실습도 하다보니 어느덧 겨울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동네 분들은 저에게, 처음으로 노래방에 가서 손자들과 노래하고 왔다고 자랑도 하고, 9시 뉴스시간에 나오는 자막을 읽어보니 이제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것 같다고 싱긋 웃기도 합니다.

생명농업으로의 전환

농사 3년 차가 되었습니다. 벼농사는 마찬가지로 왕우렁이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밭은 C. P. K와 퇴비만 넣고 일절 제초제나 화학비료를 쓰지 않고 배추와 고추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밭고랑은 처음 풀이 올라올 때 호미나 팽이로 긁고, 미처 손이 안 가 풀이 자라면 낫으로 베어 눕혀 멀칭을 했습니다. 동네에선 난리가 났습니다. 왜 제초제를 치지 않는냐는 것입니다. 저는 농약 치지 않는 농사 좀 해 봐야겠다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곤 했습니다. 풀이 가득한 우리 밭은 마을 사람들의 근심거리가 되었습니다. 제가 없는 틈을 타서 풀을 뽑아 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풀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화학비료를 쓰지 않고 퇴비만 넣었더니 결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고랑에 요소를 뿌려 주면 속이 찬다고 전문가가 와서 조언을 하기도 했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끝까지 3무(무제초제, 무농약, 무화학비료)농법으로 가야 하다고 여겼습니다.

배추를 출하할 때가 되었습니다. 교회 쪽으로 연락하니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배추를 싣고 갔습니다. 그런데 배추를 보더니 적이

실망한 표정입니다. 배추가 일반 배추의 1/3밖에 되지 않으니 그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목에 힘주어 3무(無) 농법으로 지었다고 말했지만, 아무리 유기농 무농약 배추라도 상품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얼굴보고 한번은 사먹지, 다시 찾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 팔고는 왔지만 몸에 힘이 썩 빠지는 것이었습니다. 설교 초청을 받아 배추를 판 교회에 가서 제초제의 무서움과 죽어 가는 땅을 살리는 길은 여러분들의 책임이라고 간곡히 부탁했지만 더 이상 그 교회에 배추를 팔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배추는 값이 안 맞아서 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는 교회들을 통해서 그 볼품 없는 배추를 다 팔았습니다. 별로 상품성도 없어 보이는 배추를 농약을 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다 판 것을 본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 날 이후 마을 사람들이 나에게 배추를 팔아 달라고 말하면, 나는 농약 치지 않은 볼품 없는 배추는 팔아드릴 수는 있어도 농약 친 좋은 배추는 팔아드릴 자신이 없다고 대답하곤 합니다.

어쨌거나 이런 절반의 실패는 더 다부진 마음을 먹게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3무농법으로 지으면서도 사람들이 기쁘게 내 농산물을 찾도록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유기농업을 하는 사람들을 찾아가 배우고, 책을 사서 공부하고, PC통신이나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아보며 저만의 노하우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겨울에 먼 지역에 살고 있는 젊은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유기농 무농약 재배농법을 가르쳐 달라는 것입니다. 뜻밖이었습니다. 저보다 농사경력도 많고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농사짓는 젊은 이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머리를 맞대고 어디부터 시작할 것인가 의논했습니다. 우선 벼농사부터 청둥오리농법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충남 홍성군의 홍동면에 있는 주형로 씨를 초청하여 강의를 들었습니다. 몇 번의 모임 끝에 5명이 청둥오리농법으로 농사짓기로 마음을 모았습니다.

농사 4년 차의 농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리 망을 구입하여 망을 치고 모낸 지 15일 경쯤 되었을 때 생후 한달 쯤 된 청둥오리를

넣었습니다. 족제비가 망 안쪽의 논두렁에 살고 있다가 매일 오리를 1-2마리씩 잡아먹었습니다. 1주일만에 족제비는 잡혔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10여 마리의 오리가 희생되었습니다. 장마 때는 한꺼번에 떼죽음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토록 신경 써서 망을 쳤는데도 어디에 구멍이 있었는지 오리들이 이웃 논에 들어가 있다가 저를 보고 다시 망 안으로 쫓아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눈에 가면 오리들은 껍뻍거리며 저를 쫓아 다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신기하다며 구경하러 왔습니다. 처음 시도한 농법치고는 그런 대로 결실이 나왔습니다. 청둥오리 농법회원 중 3명은 웬만큼 됐는데 2명은 오리가 웅덩이를 만드는 것을 보고 집안의 어른이 반대하여 결국은 중도에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서울 쪽에 연락하여 쌀을 80kg 한 가마에 20만원씩 받고 다 팔아 주었습니다. 오리는 이삭이 펴 때 거두어서 10월경에 약용으로 1마리에 1만원씩 받고 다 팔았습니다.

그 해 장마는 유난히 길고 비가 많이 왔습니다. 장마가 끝나자 비한 방울 오지 않고 퇴약별만 내리쬐었습니다. 그 바람에 강원도 배추가 병이 들어 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우리 배추는 화학비료를 넣지 않고 퇴비만으로 해서 그런지 벌레도 없고 병도 걸리지 않아 아주 깨끗했습니다. 오히려 비가 많이 온 덕분에 연하며 속도 잘 들었습니다. 또 고랑의 풀을 낮으로 베어 덮었더니 뜨거운 퇴약별에도 흙의 온도가 얼마 오르지 않아 생기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배추를 출하할 때 뒷집 아저씨가 낚을 하였는데 처음에 고랑에 풀이 많다고 타박하던 분이 고랑의 풀이 오히려 배추한테는 유리하다는 내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배추 한 포기에 2,500원씩 받아 농사를 시작한 후 처음으로 목돈을 만져 보았습니다.

고추는 퇴비와 C. P. K만 넣고 모종을 심었습니다. 고추는 거름을 많이 필요로 하는 작물이라 비료는 과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작물입니다. 또 진딧물 같은 해충이나 탄저병 같은 바이러스에 약한 작물입니다. 그런데 우리 고추는 키도 별로 크지 않고 가지도 그렇게 벌어지지 않았는데 엄청나게 많이 달렸습니다. 효소제나 목

초액, 마늘유를 전혀 치지도 않았는데 전혀 병 기운도 없고 벌레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동안 화학비료 쓰지 않고 퇴비만으로 농사한 덕에 땅이 살아났기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앞집 아저씨가 와서는 고추가 잘 안된 것 같아 조금씩 웃 비료를 주었더니 어느 날 갑자기 고추가 다 주저앉았다며 우리 고추의 잘된 비결이 뭐냐고 묻기에 화학비료 안 쓰고 제초제 안 쓰고 농약도 안 쓰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렇게 된다고 대답했습니다. 고추는 태양초로 말려 한 근에 만 원씩 받고 팔았습니다. 비싼 값이었지만 물량이 팔려 주문을 다 대주지 못했습니다.

마을에 들어가 산 지 한 4년 되니까, 누구네 땅이 어디 있고, 땅의 특성이 어떠한지 자세히 알 수 있었습니다. 누구네가 돈이 급해 어떤 땅을 내놓았는지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쪽 골짜기에 있는 밭을 통 채로 그리고 아주 싸게 2,500평을 구입하였습니다. 이곳은 다른 농지와 떨어져 고립된 곳이라 유기농 무농약농사 짓기에 아주 적지입니다.

유통망의 확보와 품질 인증

5년 차의 농사를 말하면, 제가 농사하고 있는 농지가 해발 600m에서 750m에 이르는 고랭지 지역이라 여름 배추농사가 가능하기에 농사의 주 작목을 배추로 삼았는데 그 동안의 연고를 통해 교회에 파는 것이 한계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규모도 커지고 생산량도 늘어나면서 안정적인 판로를 개척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생협(생활협동조합)을 통한 판매였습니다. 먼저 왕우렁이 농법을 하면서 알고 있었던 광주 한마음 공동체에 연락을 했더니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한여름의 무농약재배 배추는 저만 하고 있기에 이제는 여름에도 배추를 먹을 수 있게 되었다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부산 한살림 생협 사무국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부산 KBS에서 귀농 특집을 하는 데 출

연해 달라는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아직 제대로 된 농사꾼이 아니어서 출연 할 자격이 없다고 완곡히 거절하면서 지금 무농약 배추를

무농약재배 농산물 품질인증품 재배포장

관리책임자 : 이 성 호
(T 0598-944-9742)

재배품목 및 면적 : 0.7ha
사업개시연월일 : '99. 7.

이곳은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무농약농산물 품질인증품을 재배하는 포장입니다

재배하고 있는 데 좀 팔아달라고 했더니 자기 부탁은 들어주지 않으면서 요구만 한다고 화를 내면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며칠 후에 다시 전화가 왔는데 귀농 특집은 무산됐다고 하면서 배추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조금 지난 후에 부산 한살림에 배추를 출하하면서 돌아오는 길에 창원에 있는 경남 한살림에 배추 샘플을 가져가서 보여 주었더니 여름배추가 없는 데 잘 됐다고 하면서 거래하자고 해서 광주외 한마음 생협, 부산 한살림 생협, 경남 한살림 생협 이렇게 안정적인 3군데의 판로가 개척되어서 더 이상 판매문제에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제대로 된 배추 생산에만 몰두하면 되는 획기적인 한해였습니다. 6년 차에는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구, 농산물검사소)에서 배추 무농약재배 품질인증을 받았습니다.

7년 차였던 2000년은 최대 위기의 한해였습니다. 초반에는 극심한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었는데 두 번의 태풍(프라피룬과 사오마이)이 우리 지역을 통과하면서 배추가 쓰러지고, 뿌리가 뽑히는 등 여름배추를 거의 출하 할 수 없었고, 이후 계속된 비로 가을배추를 심을 수 없어 엄청난 타격을 받았습니다. 누구의 도움 없이 이 위기를 극복해야만 제대로 된 농사꾼이 되리라 생각하고, 없으면 굶고, 나가지도 않고, 쓰지 않는 내핍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평소 내 생활이 얼마나 거품이 컸나를 발견하게 되었고 생활의 규모를

줄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절제와 청빈의 생활이 얼마나 정신과 영적생활에 큰 기쁨을 주는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겨울이 오자 겨울을 난다는 것이 큰일이었습니다. 내년의 농사자금을 만드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산속마을 이기에 부근에 산판이 있었습니다. 찾아갔습니다. 너무도 힘든 일이라 사람이 부족했기에 바로 일 할 수 있었고, 힘든 겨울의 산판일은 저로 하여금 현실에 타협하지 않아도 살 수 있다는 자신감과 확신을 갖게 하였습니다.

제작년의 농사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되었습니다. 좋은 일기가 받쳐준 때문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한눈 팔지 않고 오직 한길만을 고집한 결과라 생각합니다. 부산의 대형매장 메가마트와 대구에 있는 동아백화점에도 제가 농사한 배추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정한 가격으로 말입니다.

작년인 2002년은 여름에 10여일 이상 계속된 집중호우와 태풍 루사로 인해 농로가 끊어지고 밭이 물에 쓸려나가고, 설상가상으로 때 이른 추위로 인해 가을배추가 속이 차지 않아 농사를 망친 해였습니다. 누구에게나 다같이 힘들었던 해였습니다. 지금 저는 돼지 농장에서 나오는 분노로 만든 액비를 세레스 트럭에 담아 논이나 밭에 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몸에서는 찢고 찢어도 똥냄새가 나지만, 올해도 빛 없이 농사하고자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5000평 정도 농사하고 있는데, 주 작목은 여름 고랭지 배추입니다. 배추로 품질인증을 받은 농가는 전국에서 10여 농가인데 여름배추로 품질인증을 받은 농가는 제가 유일합니다. 저는 배추를 교회로 내지 않고 생협으로 내고 있습니다. 교회와 거래를 할 경우 겉모양을 너무 따지고 까다로우며 정상적인 거래인데도 도와준다는 생각으로 생색을 낼 때가 많습니다. 농사는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동참하는 귀한 일이라는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광주 의 한마음 공동체생협, 부산 한살림생협, 경남 한살림생협 대전의

한밭살림 등 4군데로 내고 있는데 품질인증을 받은 것이 알려져서 그런지 몇 군데 생협들이 자기들과도 거래했으면 좋겠다고 의사 타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4월부터 9월까지 20일 간격으로 배추를 심습니다. 그러면 6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 배추가 20일마다 나가게 되며 저와 거래하는 생협들의 조합원들은 한여름 내내 제가 재배한 무농약 배추로 김치를 담가먹게 되는 겁니다.

목회자의 바램과 기도

교회가 뭔지 기독교가 뭔지 아무 것도 모르는 곳에 교회가 시작되어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심히 극적이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살고 있는 마을은 대부분의 60대 이상의 노인들입니다. 저와 아내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분들은 평생 농사만 짓고 살아왔습니다. 세상에 이분들만큼 고된 삶을 살아온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생을 마감한다면 이보다 비참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결코 데려가지 마십시오.”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것 같습니다. 올해로 10년째 살고 있는 데 한 분도 돌아가신 분이 없습니다. 아니 올해 한 분 돌아 가셨네요. 불행히도 이 분은 귀가 어두워서 어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동안 사고도 없었고, 마을에 흉한 일도 없었습니다. 만일 무슨 문제가 생겼다면 이 동네에 들어온 목사인 저에게 화살이 돌아 왔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철저히 보호하셨습니다. 오히려 갑자기 쓰러져 혼수상태에 빠진 할머니가 저의 기도로 정신이 들기도 하였고, 심한 병으로 병원에 가는 뒷집 연동 아저씨가 이제가면 살아서는 돌아오지 못한다며 마지막 인사를 한다고 저를 불렀습니다. 온 마을사람들이 다 모인 그 자리에서 제가 예배를 드리고 안수기도하고 보냈는데 열흘만에 건

강한 몸으로 돌아와서는 마을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려주셨다고 힘 있게 증거하기도 했습니다. 박정순 아주머니는 꿈에 귀신이 배가 고파 못살겠다고 하면서 이제 나는 갈 테니 잘 먹고 잘 살라고 했다며 귀신이 떠난 신주는 필요 없다고 신주단지를 없애달라고 해서 불태워 버렸더니 그 후 우리 교회의 세례교인이 되었습니다. 비록 제사 문제로 교회에 나오시지 못하는 분들도 마을에 교회가 있음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산골마을이라 순박하고 남에게 해를 끼치거나 하지는 않는데 좀 좀스러운 사람들입니다. 절대로 자기에게 손해가 오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생긴 이후로 마을이 변해 가는 것을 느낍니다. 요새는 손해가 같지라도 자기 것을 내놓고 양보도 하고 마을을 위해 총대를 멜 줄도 압니다. 마을을 위해 기도한 결과가 아닌가 보아 집니다.

저에게 목사가 목회나 제대로 하고 기도나 열심히 하지 뭐 하러 농사를 짓느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바램이 있다면 제대로 된 농사꾼이 되고 싶습니다. 얼치기 농사꾼이 아닌 진짜 농사꾼 말입니다. 인간의 끝없는 욕망이 다 망쳐버린,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은 농사꾼만이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심고 생명을 가꾸는 일은 농사꾼만이 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농사야말로 사람들의 생명을 유지시키고 생명을 지키는 성직입니다. 목회자가 영혼을 살리는 성직자라면 농사꾼은 육체의 생명을 살리는 성직자인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무엇이라도 하지 않으면 뒤쳐지는 것 같고 도태되는 것 같아 불안하고 초조함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의 현대인입니다. 그러다 보니 무리수를 두게 되고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은 그렇지 않습니다. 질서 있게 이 세상이 돌아가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믿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농사입니다. 심어야 할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습니다. 봄 다음에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며 겨울이 오지 봄이 오고 다음에 겨울 그리고 여름 가을이 오지 않습니다. 농사꾼은 봄이 오면 주저하지 않고 밭을 갈고 씨를 심습니다. 반드시 여름이 올 것이고 그리고 가을이 오면 결실이 맺힐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믿음이 좋은 이는 농사꾼입니다.

저는 배추모종을 해서 밭에 옮겨 심는데 모판에 상토를 넣고 배추 종자를 넣으면 3일 후에는 떡잎이 올라옵니다. 간혹 불량종자가 있어서 싹이 트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정상적인 종자라면 정확히 3일 후에 떡잎이 올라옵니다. 다시 3일이 지나면 떡잎 속에서 본 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20일째가 되면 본 밭에 옮겨 심습니다. 옮겨 심은 지 50일 후에는 속이 차서 출하합니다. 씨를 심어서 출하할 때까지 70일이 걸립니다. 이것을 빨리 키워서 내보내려고 영양제를 주고 비료를 자꾸 주어도 오히려 병이 올뿐이지 더 빨리 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농사꾼은 심고 나면 기다리며 때가 되면 거둡니다. 씨 한 알을 심어서 열 알을 거둔다면 열 알만 달릴 줄로 압니다. 그 이상 바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열 알이 달리도록 정성스레 보살핍니다. 이것이 농사꾼입니다. 그래서 농사꾼은 정직합니다. 요행을 바라지 않습니다. 저는 이러한 농사꾼이 되고 싶은 겁니다.

농사는 노동을 해서 짓습니다. 땀 흘려 노동을 하면 잡념이 없어 집니다. 정신이 맑아집니다. 집중하게 됩니다. 열심히 노동을 하다 보면 내 생각이 하늘까지 통해 있음을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땀 흘려 수고한 댓가가 그렇게 귀하고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노동이야말로 또 하나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프란체스코와 같은 성인들이 노동을 했나봅니다.

앞으로의 계획과 도시교회를 향한 바람

앞으로의 계획을 다음과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산수마을 100% 복음화, 공동체목회 실현 - 지역 공동체의 형성
2. 유기농법, 생명농법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최선
3. 도시 떠나 농촌으로 오는 역류현상에 준비 및 대처, 전원목회
4. 신앙 훈련 센터 설립
 - 1) 목상 및 노동훈련으로 영육이 강건한 신앙인을 만들
 - 2) 거꾸로 농촌교회가 도시교회를 살리는 방주의 역할
5. 농촌목회 후보자에게 농촌적응 훈련 실시
6. 농업선교사 파송

또한 농촌을 위해 도시교회가 할 일도 제안해 봅니다.

1. 목회자 생활비 보조에 그치지 말고 농촌교회가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하도록 자금지원을 해야 한다.
 - 1) 수익사업에 자금지원(공동건조장, 공동작업장, 또는 전문가의 자문-교회내의 자원 활용)
 - 2) 물리치료실 및 치료기구, 들에서 일하다 쉴 수 있는 원두막 등, 또 여가를 위한 시설(노래방, 게이트볼 구장 등 체육시설)
2. 그 지역 농산물을 직거래로 구입해야 한다.
 - 1) 농민이 마음놓고 유기농업을 하도록
 - 2) 농촌교회가 양심적으로 농사짓도록 신자들을 지도할 수 있게